

Clariant, 유기안료 울산공장 재가동

8월6일 직장폐쇄 철회하고 정상가동 ... 집중교섭 통해 합일점 찾기로

Clariant Pigment Korea가 노조 파업에 맞서 폐쇄했던 유기안료 울산공장의 가동을 재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Clariant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던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7월30일부로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지만 8월6일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정상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폐쇄 철회는 8월5일 노사가 다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끝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는데 서로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Clariant는 2009년 울산지역 노사분규 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었다.

노조는 7월6일부터 8일까지 파업하고 업무에 복귀한 후 14일부터 재파업을 벌이는 등 투쟁을 지속해왔으나, 8월 셋째 주에 집중교섭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임금 및 구조조정 협상에서 접점을 찾아가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07>